

##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다문화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강모<sup>1</sup>, 하규수<sup>\*</sup>

<sup>1</sup>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in Relation to Multicultural Acceptance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Kang-Mo Lee<sup>1</sup> and Kyu-Soo Ha<sup>\*</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세계화·전지구화 추세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인종 및 종교, 문화의 공존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 개념에 주목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정책방안 및 학술적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총 325부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피동적수용’의 경우 학력, 고유특성, 한국문화 이해, 국방기여, 영어권/선진국어, ‘일반적수용’의 경우 출신과 관련된 모든 요인이, ‘적극적수용’의 경우 사회적 기여, 문화적 기여를 비롯한 출신의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교육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구성원의 차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다문화 구성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하고 다문화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emigrants along with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s rapidly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s creating a new form of acculturation and a new structure of society. Racial or cultural diversity resulting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exchange is drastically increasing.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olicy plans or basic data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the future. Accordingly, it was also to set and verify causal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those purposes, a questionnaire was made up based on the literature about acculturation, and a survey was taken in Kore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Dependant variables used in analysis were sub-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unding three types called ‘The Actual Acceptance’, ‘The Active Acceptance’, ‘The Passive Acceptance’. It was found that positive effect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media experience was an important factor to reduce discriminant of multicultural community members. Therefore, we need to produce diverse media programs that can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reduce nega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y members. Additionally, multicultural education to help understanding of other races and other cultures should be developed as subject courses in university.

**Key Words** : Potential ability, Social adjustment, Social contribute, Country of origin,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Kyu- Soo Ha(Hoseo Univ.)

Tel: +82-10-3349-0024 email: ksh@hoseo.edu

Received October 23, 2014

Revised November 25, 2014

Accepted April 9, 2015

Published April 30, 2015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며 급속한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화 전지구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 물리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인구 이동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인 동포의 지속적인 유입,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증가, 2007년 재외동포의 방문취업 제도 허가 등의 이슈는 체류 외국인을 급증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약 157만 명을 상회하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1997년 38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약 20년 만에 4.5%의 가파른 성장이 눈에 띈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한국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단일민족의 동질성 이념을 넘어, 다양한 인종·민족·언어의 공존에 근거한 다문화 포용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진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분석결과 51.17의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다문화 구성원을 한국사회의 일원이 아닌 단순 경제적 목적의 체류자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 문화 개방도 순위가 전체 57개국 중 56위로 나타나[2],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태도가 통상적 혹은 인지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배타성을 띄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듯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회적 준비,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는 많은 부분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긍정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은 개인의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행위 또는 그 과정으로 해석되며, 특히 개인의 변화를 이끄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와 다문화 구성원과의 거리감 축소를 통한 인식 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주목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이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이와 관련 개별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인식하고 다양한 인종·문화·언어의 공존 및 수용을 지지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즉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인 태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타인종을 경쟁자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로써 설명할 수 있다[3,4,5]. 이러한 해석은 다문화주의에 근거하는데,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존중하며 공존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4]. 황정미(2007)도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밝혔으며[6], 민무숙 외(2010) 또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했다[1]. 비슷한 관점에서 김경근과 황여정(2012)은 다문화 수용성을 타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는 개방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7]. 이렇듯 다수의 학자들은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타인종·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들에 대한 포용과 공존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 2.2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

2000년 이후 다문화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문화 수용성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논

의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권의주의 및 종족배제주의[8,9], 사회적 거리감[6,10], 이념성향 및 가치관[11,12,13], 다문화 교육 및 콘텐츠[14,15] 등이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다만 그동안의 다문화 수용성관련 연구는 일부 한정된 개념만을 대상으로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어, 보다 다양한 개념을 적용한 다채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사회적응, 사회기여, 출신, 다문화 교육에 이르는 요인으로 확대·접근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단편적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2.3.1 잠재적 능력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학력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지나친 학력중시 풍조가 만연해 왔으며, 학력이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뿌리 깊은 학력주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과열시키고, 노동시장 진입 준비단계에서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등 과잉교육의 병폐를 낳기도 했다. 이렇듯 학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학력 및 능력에 따라 수용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호와 비선호,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성별, 직업, 나이, 피부색 등의 고유 특성과, 성격, 가치관 및 성품을 포함한 인성 또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은 일반 국민이 가진 가치관, 성향, 학력 등의 개별특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진행한 바 있으나, 다문화 구성원에 주목하여 이들의 학력, 능력, 인성, 고유 특성 등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의 학력, 능력, 인성, 고유 특성을 ‘잠재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다문화 수용성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2.2.2 사회적응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모국을 떠나 특정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로의 동화 및 적응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 정도를 의미하며[16],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17], 사회에 대한 소속감[18] 등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 의존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 감정과 환경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적응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19,20]. 이렇듯 새로운 사회, 문화로의 적응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개별적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정착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능력은 적응 속도를 빠르게 진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국어 교육관련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언어능력이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순규와 이주재(2010)의 연구[21]와 사회문화적 적응과 한국어 능력의 유의미한 관계를 입증한 최운선(2007)의 연구 결과[22]가 뒷받침한다. 언어능력과 더불어 적응국가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또한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이민자의 부적응의 원인 중 하나로 음식문화를 비롯한 그 사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제시된 바 있으며[23,24], 봉사활동 및 모임참석, 인턴을 비롯한 아르바이트 경험, 여가활동 등의 사회생활이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동질감을 높이고 대인관계를 넓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6].

### 2.2.3 사회기여

그동안 한국사회는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백과 산업화의 여파로 농촌에 남겨진 남성들의 결혼실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성비 감소 등의 문제를 겪으며 대안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지혜왔다. 물론 이들이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으나,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노동자들의 비선호 일자리의 공백을 메꾸줌으로써 노동공급확대에 따른 생산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동관 외(2011)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국내 GDP유발효과가 약 29.5조로 국내 전체 GDP에 1.08% 기여함을 밝혔다. 이중 전문직 노동자의 경우 약 4조 5

천억 원, 단순직 노동자의 경우 약 25조 10억 원의 GDP 유발효과를 가지며, 더불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9.9조원으로 국내 전체 부가가치에 0.98% 기여함을 입증했다[25]. 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들의 대체 노동력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 또한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군 입대인력 부족문제의 보충, 나아가 오랜 세월동안 폐쇄성을 가졌던 한국 사회의 문화적 확대 등 다문화 구성원이 미치는 기여도는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려는 수용성 증진에 작용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 2.2.4 출신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구성원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출신 이 49.4%(778,113명)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8.5%(134,711명), 베트남 7.6%(120,069명), 일본 3.6%(56,081명)로 나타나 뒤를 잇는다. 이렇듯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의 대다수가 중국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현실은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이며 배타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주 노동자’라는 차별적 편견아래 이들을 단정 지어왔으며, 합법적 이주노동자보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한 경향을 보여 왔다[19]. 또한 고아라(2005)는 수도권 초등학교생이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가난하며 지위가 낮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흑인에 대해서도 비위생적이며 불친절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26]. 조혜정(1992)은 이러한 현상을 개발국에 대한 흡수와 미개발국의 차별적 배제의 관점에서 논의했으며[27], 한경구와 한건수(2008)는 문명차별주의로[28], 김혜순(2009)은 국가차별주의로 접근했다[29].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글로벌 경쟁력 중시,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유학 등으로 대표되는 오랜 선진문화선호사상과, 개발도상국 출신에 대한 사회·문화적 낮설음에서 비롯된 편중된 관심 때문일 수 있다. 정미경(2008) 역시 영어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집착이 유학생의 인종과 언어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가져오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30], 김이

선 외(2007)는 한국인이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 구성원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나, 출신국가(선진국/개도국)에 따른 수용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31]. 김순규와 이주재(2010) 역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권 여성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음을 밝혔다[21]. 이는 이들 국가의 여성들이 빈곤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사회에 진입한다는 사회적 불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31].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 구성원의 출신에 대한 인식이 수용태도 및 수용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단초로 출신을 본 연구의 독립변인의 하나로 제시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2.3 다문화 교육경험

정부는 지난 2006년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래,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과거 어느 때 보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이해 증진, 더불어 국민들의 타문화·타인종에 대한 관심 및 공존의식 함양이라는 두 가지 현안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가진 발전적인 가능성과 그 효과에 근거한다.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식 및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13,14,32,33,34,35] 또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관련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종남(2011)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적 시각을 탈피하게 함으로써 소수문화에 대한 인정과 조화로운 관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36,37], 정명희와 이주희(2014) 역시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경험이 다문화에 대한 이질감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35]. 이는 여성가족부(2013)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다문화관련 교육경험과 행사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9].

특히 일반 국민의 다수는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한 간접경험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다문화 교육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단 몇 편에 불과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경험이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공감 능력 및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고 조절변수로써 고려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모델 및 가설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에 잠재적 능력, 사회적응, 사회기여, 출신을 독립변수로 제시하고 각각의 변수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경험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절변인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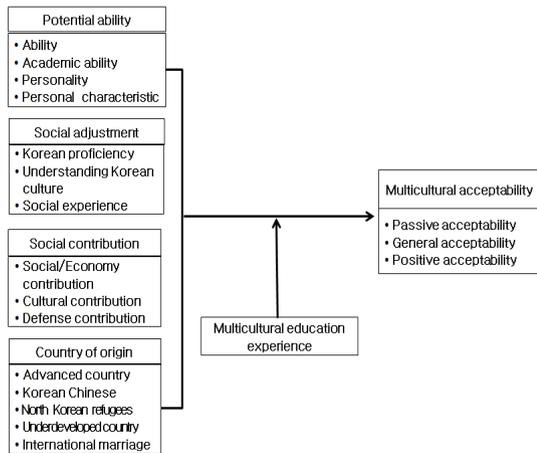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가설 1. 다문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은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 가설 2.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적응 요소는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2).

- 가설 3.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 기여는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 가설 4. 다문화 구성원의 출신은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 가설 5. 다문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 사회적응, 사회기여, 출신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경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H5).

####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기반 하여 1차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 최종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배포된 설문지는 총 500부이다. 그 중 회수된 설문지는 370부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된 45부를 제외한 총 325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다.

#### 3.3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의 ‘잠재적 능력(Potential ability)’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자원을 의미하며,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사람, 기본적인 소양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개별 능력으로 정리된다. 설문문항은 이자형과 김정근(2012)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들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구성함으로써 총 17문항의 문항이 확정되었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은 다문화 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최운선(2007), 김순규·이주재(2010), 도경은(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과정을 거쳐 총 10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기여(Social contribution)’는 다문화 구성원의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묻기 위한 문항으로, 김판준(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과정을 거쳐 총 19문항의

로 확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출신(Country of origin)’은 다문화 구성원의 출신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다문화 구성원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는 개인의 마음가짐 및 태도로 정의된다. 본 윤인진·송영호(2011), 여성가족부(2013)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과정을 거쳐 총 15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제시한 ‘다문화 교육경험(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은 개인의 다문화 교육관련 경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자형과 김정근(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과정을 거쳐 총 3문항으로 확정하였고,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조사 표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에 따르면 성별은 남성이 60%, 여성이 40%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3세 이하가 34.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46.5%로 과반수에 근접한 비율을 보였고, 거주지역은 서울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23.8%, 경기도 1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49.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직장인이 18.6%로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4.1%, 800만원 이상 15.1%,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3%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195	60.0
	Female	130	40.0
Age	under 23	111	34.2
	24~30	82	25.2
	31~40	35	10.8
	41~50	45	13.8
	more than 51	52	16.0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36	11.1
	Attending university	151	46.5
	College graduate	102	31.4
	Graduate school	36	11.1
Occupied area	Seoul	193	59.6
	Gyeonggi-do	54	16.7
	And so on	77	23.8
Job	Company operation & Specialized job	31	9.6
	Private business	18	5.6
	Employee	60	18.6
	Student	159	49.2
	And so on	55	17.0
Household income	under 300	70	37.8
	301~500	63	34.1
	501~700	24	13.0
	more than 800만원	28	15.1

### 4.2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가설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지표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이 요구된다. 먼저 측정지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설정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내적일관성 검증에 활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기준치인 .6을 모두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Table 7 참조).

#### 4.2.1 잠재적 능력 요인분석

Table 2는 다문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공통성과 성분행렬 문항에서 추출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이겐값이 1.0 이상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에 의한 전체 누적 분산 설명력은 74.14%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은 측정문항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요인 1은 ‘능력’, 요인 2 ‘학력’, 요인 3 ‘인성’, 요인 4 ‘고유 특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n the potential ability

Division	1	2	3	4
Professionalism	.812	.240	.181	.044
Career	.736	.278	.037	.026
Independence ability	.730	-.009	.258	-.086
Economic power	.724	.089	.088	.184
License	.703	.366	.040	.061
Occupation	.599	.103	.213	.362
University	.228	.896	-.017	.170
Academic ability	.209	.883	.034	.105
Major	.214	.879	-.010	.094
Values	.183	-.020	.925	.077
Character	.221	-.012	.889	.076
Personality	.115	.044	.880	.177
Gender	.134	.094	-.014	.878
Age	.136	.081	.200	.833
Skin color	-.020	.149	.119	.828
Eigenvalues	3.383	2.684	2.633	2.421
dissipation rate(%)	22.56	17.89	17.56	16.14
accumulation rate(%)	22.56	40.45	58.00	74.14

#### 4.2.2 사회적응 요인분석

Table 3은 사회적응 구성요소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위해 공통성과 성분행렬 문항에서 추출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이젠값 1.0 이상인 값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에 의한 전체 누적분산의 설명력은 76.25%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1은 ‘한국어능력’, 요인 2 ‘한국문화 이해’, 요인 3 ‘사회경험’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n the Social adjustment

Division	1	2	3
Multicultural members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in fluent Korean	.862	.045	.200
Multicultural members should be able to write in fluent Korean	.838	.221	.171
Multicultural members should be able to read in fluent Korean	.788	.387	.051
It will be better for multicultural member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ctivities	.119	.787	.297
Multicultural members should have good understanding on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Korea	.373	.777	.015
It will be better for multicultural members to experience various part-time jobs	.026	.714	.309
Multicultural members should have good understanding on Korean food	.307	.688	.055
It will be better for multicultural members to have as many Korean friends as possible	.251	.107	.864
It will be better for multicultural members to attend various meetings	.085	.284	.860
Eigenvalues	2.547	2.500	1.817
dissipation rate(%)	28.30	27.78	20.19
accumulation rate(%)	28.30	56.07	76.26

#### 4.2.3 사회기여 요인분석

사회기여 구성요소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이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에 의한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65.88%로 나타났다. 요인의 특성과 선행연구에 따라 요인 1 ‘사회·경제적 기여’, 요인 2 ‘문화적 기여’, 요인 3 ‘국방 기여’로 명명하였다.

Table 4. Factor analysis on the Social contribution

Division	1	2	3
Foreign workers will b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in rural areas caused by a lack of human resources	.768	.129	.208
Multicultural members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738	.323	.150
Foreign workers will be a solution to this problem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hich is a lack of human resources	.724	.199	.042
Multicultural members will increase the population of the young generation	.723	.188	.327
Multicultural members will take part in expanding the tax systems	.679	.182	.399
Multicultural members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diversity	.162	.826	.046
Multicultural members will inspire South Koreans to change their closed ways of thinking	.171	.803	.164
Multicultural members will be a help for South Korea to understand diverse cultures around the world	.190	.750	.098
Multicultural members will make a contribution to positive changes in international images and reputations of South Korea	.294	.652	.280
Multicultural members will help South Korea to keep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355	.560	.260
Multicultural members will enhance the social atmosphere of South Korea	.384	.540	.348
Multicultural members will strengthen the military of South Korea	.187	.173	.896
Multicultural members will resolve problems caused by a lack of people who would want to join the army	.194	.190	.828
Multicultural members will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159	.172	.826
Eigenvalues	3.727	3.346	2.810
dissipation rate(%)	24.85	22.31	18.73
accumulation rate(%)	24.85	47.15	65.88

#### 4.2.4 출신 요인분석

다문화 구성원의 출신관련 구성요소의 요인분석은 Table 5와 같다. 아이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87.86%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은 측정문항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요인 1 ‘영어권/선진국’, 요인 2 ‘조선족’, 요인 3 ‘북한이탈주민’, 요인 4 ‘비영어권/후진국’, 요인 5 ‘국제결혼가정’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Table 5.** Factor analysis on the Country of origin

Division	1	2	3	4	5
I want to see more foreigners coming from developed nations.	.925	.035	.063	.153	.095
I want to see more foreigners who speak English.	.904	.093	.069	.212	.143
I want to see more foreign workers coming from developed nations.	.859	.111	.060	.262	.165
Chinese people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outh Korea.	.083	.886	.270	.191	.165
Chinese people will make several contributions to many fields of South Korea.	.075	.864	.262	.198	.166
I want to see more Chinese in South Korea	.118	.812	.340	.290	.067
North Korean refugee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outh Korea	.080	.277	.880	.104	.142
I want to see mor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079	.169	.873	.159	.157
North Korean refugees will make good contributions to several fields of South Korea	.039	.386	.835	.064	.171
I want to see more foreigners coming from under-developed nations	.176	.275	.126	.829	.242
I want to see more foreigners who speak other languages besides English	.282	.146	.129	.819	.202
I want to see more foreign workers coming from under-developed nations	.297	.261	.110	.818	.201
Multicultural families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outh Korea	.199	.148	.223	.319	.831
Multicultural families will make a contribution to several fields in South Korea	.257	.240	.277	.309	.761
Eigenvalues	2.75	2.71	2.67	2.56	1.60
dissipation rate(%)	19.6	19.3	19.1	18.2	11.4
accumulation rate(%)	19.6	39.0	58.1	76.4	87.8

#### 4.2.5 다문화 수용성 요인분석

종속변인으로 제시한 다문화 수용성의 요인분석결과는 다음 Table 6을 통해 설명된다. 아이겐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에 의한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74.98%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은 측정문항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요인들을 요인 1 ‘피동적 수용’, 요인 2 ‘일반적 수용’, 요인 3 ‘적극적 수용’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Table 6.** Factor analysi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Division	1	2	3
National images force me to accept multicultural members	.953	.050	.060
Social atmospheres force me to accept multicultural members	.944	.056	.074
I am forced to accept multicultural members because I am afraid of what others would think of me	.903	-.013	.148
It will be better for South Korea to co-exist with various races and cultures	.013	.846	.232
It will be better for South Korea to live with more foreigners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skin colors and different cultures	.097	.805	.263
I see myself ready to accept various cultures	-.024	.781	.049
I agree to this idea of how the whole world is becoming more acceptable with multicultural members	.038	.678	.255
Any friend of mine who gets married to a multicultural member will enjoy my full support	.027	.206	.888
My family will give me a full support if I get married to a multicultural member	.115	.227	.861
I am willing to learn languages of multicultural members in order to get close to them	.143	.220	.710
Eigenvalues	2.663	2.581	2.255
dissipation rate(%)	26.63	25.81	22.55
accumulation rate(%)	26.63	52.44	74.99

#### 4.3 가설검증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절차 중 상호작용변인의 생성과정에서 다중공선성 현상이 드러남에 따라, Baron과 Kenny(1986)의 통계적 오류 해결방식에 근거, 개별 변인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평균중심화 자료 변환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극복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총 3개로, 각각의 종속변인 별 다음의 3단계 모형으로 분석이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독립변수를, 2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3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함으로써,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Table 7. Reliability verification

Division		Cronbach's α
potential ability	Ability	.876
	Academic ability	.917
	Personality	.913
	Personal characteristic	.834
Social adjustment	Korean proficiency	.851
	Understanding	.827
	Korean culture	.798
	Social experience	.798
Social contribution	Social-economy contribution	.876
	Cultural contribution	.860
	Defense contribution	.883
Country of origin	English-speaking world/advanced country	.928
	Korean chinese	.940
	North korean refugees	.920
	Underdeveloped country	.913
	International marriage	.872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assive acceptability	.933
	General acceptability	.819
	Positive acceptability	.818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715

4.3.1 피동적 수용

먼저 다문화 수용성 중 ‘피동적 수용’을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에 따르면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했을 때 35.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조절변수를 포함한 2단계는 36.2%, 3단계는 37.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R<sup>2</sup>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다문화 교육경험의 조절변수가 피동적 수용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1단계에서는 다문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 중 학력, 인성, 고유 특성, 사회적응 중 한국문화 이해, 사회기여 중 국방 기여, 출신 중 영어권/선진국이 피동적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 고유 특성, 문화이해, 국방기여, 영어권/선진국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인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교육경험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2단계 분석 결과, 학력, 고유 특성, 문화 이해, 국방기여, 영어권/선진국, 다문화 교육경험이 피동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다문화 구성원

의 출신 중 조선족과 다문화 교육경험, 북한이탈주민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항이 각각 피동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8. Passive acceptability's moderating effect

Division	1	2	3
	b	b	b
(invariable)	-.007	-.007	-.007
Ability(A)	-.019	-.028	.243
Academic ability(B)	.156**	.157**	.137
Personality(C)	-.303***	-.298***	-.050
Personal characteristic(D)	.178***	.173***	.351
Korean proficiency(E)	.090	.096	-.172
Understanding			
Korean culture(F)	.180**	.192***	.207
Social experience(G)	.006	.018	-.104
Social-economy contribution(H)	.046	.037	-.223
Cultural contribution(I)	.017	.012	-.107
Defense contribution(J)	.128*	.141*	.036
English-speaking world(K)	.112*	.106*	-.180
Korean chinese(L)	-.066	-.071	.388
North korean refugees(M)	-.033	-.048	.350
Underdeveloped country(N)	.042	.029	.139
International marriage(O)	.055	.039	-.075
education experience(P)		.090*	.058
A*P			-.279
B*P			.007
C*P			-.241
D*P			-.223
E*P			.286
F*P			.023
G*P			.117
H*P			.250
I*P			.126
J*P			.132
K*P			.287
L*P			.482*
M*P			.413*
N*P			-.126
O*P			.095
F	12.923***	12.450***	7.314***
R <sup>2</sup>	.386	.394	.437
Adjusted R <sup>2</sup>	.356	.362	.377
R <sup>2</sup> Change	.386***	.007*	.044*

4.3.2 일반적 수용

다문화 수용성 중 ‘일반적 수용’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el 9로 설명된다. 1 단계에서는 출신 중 영어권/선진국,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에서는 출신 중 영어권/선진국,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 다문화 교육경험이 다문화 구성원

의 일반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 중 능력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출신 중 비영어권/후진국이 일반적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 교육경험과 비영어권/후진국의 상호작용항이 일반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했을 때 12.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조절변수를 포함한 2단계는 16%, 3단계는 18.5%로 나타났다. R<sup>2</sup>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일반적 수용에 대한 다문화 교육경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Table 9.** General acceptability's moderating effect

Division	1	2	3
	b	b	b
(invariable)	-.003	-.002	-.003
Ability(A)	-.145**	-.166**	-.289
Academic ability(B)	-.093	-.090	.093
Personality(C)	.076	.086	-.035
Personal characteristic(D)	-.003	-.014	.445
Korean proficiency(E)	-.077	-.064	-.139
Understanding Korean culture(F)	-.026	-.001	-.497
Social experience(G)	.008	.035	.083
Social-economy contribution(H)	-.039	-.059	.154
Cultural contribution(I)	.002	-.008	.259
Defense contribution(J)	-.118	-.091	-.197
English-speaking world(K)	.189**	.176**	.185
Korean chinese(L)	.173**	.161**	.434
North korean refugees(M)	.193***	.161**	-.115
Underdeveloped country(N)	.105	.078	-.768**
International marriage(O)	.266***	.233***	.012
education experience(P)		.198***	.200***
A*P			.109
B*P			-.178
C*P			.130
D*P			-.511
E*P			.087
F*P			-.523
G*P			-.046
H*P			-.216
I*P			-.261
J*P			.084
K*P			.001
L*P			-.288
M*P			.287
N*P			.881**
O*P			.233
F	4.128	4.855	3.368
R <sup>2</sup>	.167	.202	.263
Adjusted R <sup>2</sup>	.127	.160	.185
R <sup>2</sup> Change	.167***	.035***	.061*

### 4.3.3 적극적 수용

Table 10은 '적극적 수용'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1단계에서는 사회기여 중 사회·경제적 기여, 문화적 기여, 출신 중 영어권/선진국, 북한이탈주민, 비영어권/후진국, 국제결혼이 적극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응 중 한국문화 이해는 적극적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기여, 문화적 기여, 출신 중 영어권/선진국, 북한이탈주민, 비영어권/후진국, 국제결혼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중 한국문화 이해는 적극적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다문화 구성원의 학력과 다문화 교육경험, 국제결혼과 다문화 교육경험의 상호작용항이 적극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은 적극적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1단계는 36.8%의 설명력을 보였고, 조절변수를 포함한 2단계는 36.6%, 3단계는 39.4%로 나타났다. 그러나 2단계 R<sup>2</sup>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3단계의 R<sup>2</sup>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다문화 교육경험의 조절변수는 적극적 수용에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10.** Positive acceptability's moderating effect

Division	1	2	3
	b	b	b
(invariable)	.001	.001	.001
Ability(A)	.086	.085	.090
Academic ability(B)	-.086	-.086	-.501*
Personality(C)	.070	.071	.285
Personal characteristic(D)	-.071	-.071	.064
Korean proficiency(E)	-.005	-.004	.276
Understanding Korean culture(F)	-.184***	-.182***	-.078
Social experience(G)	-.018	-.016	.076
Social-economy contribution(H)	.175**	.173**	-.086
Cultural contribution(I)	.385***	.385***	.487
Defense contribution(J)	.046	.048	-.215
English-speaking world(K)	.136*	.135*	.279
Korean chinese(L)	.032	.031	.290
North korean refugees(M)	.130**	.128**	.091
Underdeveloped country(N)	.173**	.171**	.247
International marriage(O)	.163**	.161**	-.391
education experience(P)		.015	.007
A*P			-.001
B*P			.418*
C*P			-.194
D*P			-.118
E*P			-.313

F*P			-.075
G*P			-.095
H*P			.290
I*P			-.109
J*P			.288
K*P			-.158
L*P			-.259
M*P			.033
N*P			-.071
O*P			.562 <sup>*</sup>
F	13.529 <sup>***</sup>	12.653 <sup>***</sup>	7.764 <sup>***</sup>
R <sup>2</sup>	.397	.397	.452
Adjusted R <sup>2</sup>	.368	.366	.394
R <sup>2</sup> Change	.397 <sup>***</sup>	.000	.054 <sup>*</sup>

## 5. 결론

본 연구는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을 둘러싼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다문화 교육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은 그 정도에 따라 피동적 수용, 일반적 수용, 적극적 수용의 세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피동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고유 특성, 한국문화 이해, 국방기여, 영어권/선진국으로 드러났으며, 인성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조선족과 다문화 교육경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교육경험의 상호작용항이 피동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수용’은 출신과 관련된 모든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반면 능력은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비영어권/후진국과 다문화 교육경험의 상호작용항이 일반적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적극적 수용’은 사회적 기여, 문화적 기여를 비롯한 출신의 모든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문화 이해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학력, 학력과 다문화 교육경험, 국제결혼과 다문화 교육경험의 상호작용항의 적극적 수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문화 구성원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인식 및 태도의 흥미로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다문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 중 학력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동적 수용과 적극적 수용에서 학력이 미치는 영향의 상반된 결과가 확인된다. 즉 다문화 구성원의 학력이 피동적 수용에는 정적인 영향을, 적

극적 수용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 자리 부족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다문화 구성원에게 느끼는 경쟁심리 및 경제심에서 비롯된 결과로 유추된다. 즉 주류사회집단인 한국인이 다문화 구성원에게 현실적 위협(Realistic threats)을 느낌으로써 권위적 성향, 편견, 보수적 성향 등과 맞물려 다문화 수용성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학력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인들에게 학력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큰 만큼, 학력에서 오는 열등감이 반응한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학력이 적극적 수용에서 단독으로는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경험과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교육경험이 학력의 부적인 영향을 상쇄시켜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개 차원 모두에서 영어권/선진국 출신의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수용의사가 확인됨으로써, 출신국의 배경에 따른 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영어권/후진국은 일반적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보여 출신지역이 다문화 구성원의 수용에 여전히 편견으로 인한 장애요소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의 통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학력, 출신 등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소극적인 수용에서 적극적인 수용의 수준으로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 각종 사회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문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등 배타적인 성향을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따른 다문화 교육의 관점 및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도래와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이라는 시의성을 근간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의 고무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그동안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왔던 요인들을 독

립변인으로 제시하고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다문화 관련 정책적 시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측정항목의 정교화 과정을 거쳤으나 보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면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단편적인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FGI 방식도 고려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References

- [1] M. S. Moon, S. S. An, I. S. Kim, G. M. Kim, Y. G. Jo, J. A. Ryu,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 for Korean Cultural Solubl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2] Hyundai Research Institute, "Global Economic Crisis and Korea's economic", 2009.
- [3] H. Troper, "Multiculturalism", In P. R. Magocsci (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997-1006, 1999.
- [4] I. J. Yoon,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42, No.2, pp. 72~103, 2008.
- [5]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Vol.23, No.1, pp.143-192, 2011.
- [6] J. M. Hwang, A. S. Kim,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4, pp.152-272, 2007.
- [7] K. K. Kim, Y. J. Hwang,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9, No.1, pp.87-117, 2012.
- [8] P. J. Song, H. G. Lee, S. A. Park, Y. O. Ho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Study on attitudes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Relationships for the Disabled", Journal of Psychology, pp.69-71, 1999.
- [9] K. M. Ya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Adolescents' Attitude to Minority Group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23, pp.59-79, 2009.
- [10] B. S. Hong, Y. A. Lee,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Sensitivity on School Violence Behavior among Adolescents",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No.23, pp.307-335, 2011.
- [11]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No.55, pp.579-591, 2009.
- [12] T. J. In, "The Study on Conscious reearch of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city and Kyungsangnamdo Toward ethno-racial Distances and Cultural d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13, No.2, pp.339-369, 2009.
- [13] S. W. Yoon, S. D. Kim,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1, pp.91-117, 2010.  
DOI: <http://dx.doi.org/10.15820/khjss.2010.36.1.005>
- [14] J. H. Lee, K. K. Kim, "Determinants of Korea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cusing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2, No.3, pp.163-192, 2012.
- [15] H. J. Lee, J. W. An, S. W.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content", Korean Society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7, No.3, pp.34-57, 2013.
- [16] R. S. Lazarun &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17] J. W. Berry, D. L. Sam,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J. W. Berry, M. H. Segall, C. Kagitcibasi, Handbook of Gross-Cultural Psychology, Vol.3, 1997.
- [18] Y. K. Kang, "Factor of defectors Affecting Social Adjustment", Sungkonghoe Univ, 2011.
- [19] I. J. Yoon, Y. Ho. Song, S. D. Kim, J. Y. Song, "Awareness of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Seoul: Kiss, 2010.
- [20] J. H. Shin,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Between the Immigrant Women's Children and General Students", Ewha Wome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21] S. K. Kim, C. J. Lee,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a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5, No.1, pp.5-20, 2010.

[22] W. S. Choi, A Study on the Social-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Vol.46, No.1, pp.141-181, 2007.

[23] Y. H. Han, W. S. Shin, J. N. Kim,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19, No.1, pp.115-159, 2011.

[24] S. S. Lee, "Studies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Germany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Program",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Nop.39, pp. 179-208, 2011.

[25] D. K. Kang, H. C. Rhee, K. Y. Lee, "An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Impac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IOM MRTC Working Paper Series, 2011.

[26] A. R. Go, "Research of Racial Bias of Children Focus on Seoul and Kyougkido" Seou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27] H. J. Jo, "Post a Postcolonial Era Intellectuals Read and Read Life", Seoul: Romoon, 1992.

[28] K. K. Han, K. S. Han, "Korean Cultural Ideals and Social Reality: Beyind Civilization and Holistic Care Blooded Discrimination",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71-116, 2007.

[29] H. S. Kim, "Addressing the Now and Seeking the Futur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on Immigration", Ministry of Justice, 2008.

[30] M. K. Jung, "Study on the Status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Multicultural Awarenes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R 2008-5-22, 2008.

[31] I. S. Kim, J. M. Hyong, J. Y. Lee, "Establish Policy Paradigm for the Implementation if a Multi-racial,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32] J. H. Yang, "Representation of Migrating Women: News Depiction of Inter-rationally Married Asian Women to Korean Men", Media, Gender&Culture, Vol.7, pp.47-164, 2007.

[33] H. S. Park, M. S. Won, "An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24, No.2, pp.303-325, 2010.

[34] J. H. Park, J. K. Jung, "A Validation Study for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Journal of Psychology, Vol.22, No.1, pp.1-21, 2008.

[35] S. M. Park, K. S. Chung, "Study on Prejudice Towards Minority Groups", Social Research, Vol.1, PP.169-206, 2006.

[36] M. H. Jung, J. H. Lee, "The Influenc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to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AME International Conference, pp. 427-440, 2014.

[37] J. N. Seo,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Seoul: Hakjisa 2010.

[38] J. N. Seo, "Needs and Direc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Science of Erudition Community, Vol.13, No.2, pp.23-40, 2011.

**이 강 모(Knag-Mo Lee)**

[종신회원]



- 1979년 2월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 (영문학사)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홍보전공
- 2002년 2월 : 송담대학 겸임교수
- 2003년 2월 ~ 2012년 2월 : 신한금융그룹 감사
- 2014년 3월 ~ 현재 : SK증권, 감사
- 2010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벤처, 금융, 방송통신, 방성통신, 창업, 다문화

**하 규 수(Kyu-Soo Ha)**

[종신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경영, 경영전략